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215-262
<https://doi.org/10.29212/mh.2022..124.2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김태현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 목 차
1. 서론
 2. 항일유격대 집단과 소련군의 모방
 3. 독자적 군사 사상의 형성
 4. '전군 친위대화'의 논리로 굴절
 5. 결론

초 록 본 논문은 '주체 군사 사상'으로 불리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을 '자주의 모색과 이념의 굴절'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소련군의 기계적 모방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군사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정권 안보 논리와 공세적 모험주의의 성향을 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특색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주'와 '독자성'을 화두로 한 '실천적 군사지침'

으로서 배태하였다. 하지만, 북한 군사 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맞물리면서 ‘자위 사상’이라는 ‘실천적 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를 강화하는 ‘정치 전략적 지침’으로 굴절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의존성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자주’적 동기의 군사안보 차원의 발전전략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군사적 천재’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굴절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김일성의 통치를 목숨으로 수호하자는 ‘수령 결사옹위’의 친위대화 논리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군사 사상이 ‘전군 친위대화’를 위한 정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은 북한의 공세 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위상승배를 위한 ‘상징 기제’로서 군사 사상은 김일성을 군사적 천재로 둔갑시키고, ‘무오류성’의 신적 위상을 가진 수령의 군사 사상은 ‘불패의 신화’를 창조해야 하는 확고부동한 군사지침이 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천재’라는 상징 장치는 북한군이 전투에서 패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페르소나’를 씌우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북한의 공세적 모험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제어 : 주체적 군사 사상, 자주, 자위, 항일유격대 집단,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전군 친위대화, 공세 주의

(원고투고일 : 2022. 7. 10,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서론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이다.¹⁾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 활동의 유일한 지도지침으로서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 활동은 주체사상을 떠나 생각할 수 없으며 지탱할 수도 없다. 정권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과 군사 분야는 더욱 엄격한 사상적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김일성이 창조했다는 '주체적 군사 사상'을 유일한 군사적 지도지침으로 삼고 있다. '주체적 군사 사상'은 외세의 간섭과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립하지는 데서 출발하여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통치이념으로 승격되었던 '주체', 그리고 '전쟁과 군사력 건설, 군사 활동 등 군사문제 전반에 대한 총적 견해와 관점'으로 규정되는 '군사 사상'의 합성어이다.²⁾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말하는 '주체적 군사 사상'이란 '주체사상이 국방 분야에서 표현된 것',³⁾ 다시 말해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쟁과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에 대한 총적 견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 사상은 전쟁, 그리고 용병과 양병에 관련된 모든 군사문제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군사 사상은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주체적 군사 사상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노동신문』

1)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한겨레 신문』 (2020. 2. 17).

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p. 159. 주체 군사사상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아래 논문을 참고. 유판덕, "북한의 혁명전쟁이론으로 본 북한 핵무력,"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1호(2018).

3)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김일성의 자위 사상이라는 데 대해서," 『조선 중앙 제2 방송』 (1969년 5월 7일-5월 8일).

4) 박창희, 『한국의 군사 사상: 전통의 단절과 근대성의 왜곡』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0), p. 43.

사실에서 김정은이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자위 노선’을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강화하였다고 하는가 하면,⁵⁾ 2021년 1월 20일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김정은은 ‘주체적인 군사 사상’으로 북한을 ‘군사 강국’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⁶⁾ 그 이전에도 ‘주체적인 군사 사상’에 대한 언급은 적지 않았다. 2014년 7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 해방전쟁의 승리’는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의 승리라고 주장하면서,⁷⁾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이론, 전법’을 연구 체득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을 공식적으로도 밝혔다.⁸⁾ 최근에는 김정은이 핵무기와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실질적 핵무장 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체 군사 사상’을 연결하여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체 군사 사상은 주로 선진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크게는 ‘자주’의 담론과 ‘수령중심의 전군 친위대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유격대 활동과 1950~1953년 6·25전쟁을 토대로 하여 주체 군사 사상을 ‘창시’하였으며, 그 핵심 내용으로는 ‘자위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주체’의 개념이 암시하듯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소련과 중국의 외래 군사 사상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역량과 의지를 중시하는 ‘자위 사상’을 토대로 북한 실정에 맞는 ‘독자적’ 군사 사상의 개발을 강조해왔다.¹⁰⁾ ‘주체’의 군사 사상은 아직 보편적 이론 수준

5)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노동신문』 (2020년 10월 11일).

6)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2021년 1월 10일),” 『조선신보』 (2021년 1월 10일).

7) “주체적인 군사 사상의 빛나는 승리,” 『조선중앙통신』 (2014년 7월 24일).

8) “비범한 군사적 예지,” <https://ournation-school.com/lecture> (검색일: 2021년 7월 1일).

9) 김정일, “수령님의 군사 사상은 혁명무력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김정일전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3), p. 411.

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혁명전쟁관', '자위 사상', '주체 전법'과 같은 나름의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가진 '실천적 군사지침'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수령 결사옹위'와 '군사적 천재'와 같이 수령 유일 지배체제를 지탱하는 '상징적 정치 논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체 군사 사상이 북한의 정권 안보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공세적 군사주의와는 어떤 관계성에 놓여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학문적 연구대상이었다. 주체 군사 사상이 북한의 체제수호에는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주체'에 내재한 '자주'와 '수령중심론' 중에서 어떤 요소가 공세성과 연계되는지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 군사 사상이 본질적으로 '공세적'인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 내에서는 큰 비판 없이 수용되어 왔다. 그것은 북한의 6·25 남침 이후 냉전기에 지속하여 온 군사도발과 테러, 탈냉전기의 국지도발 등 북한의 대남 군사침략 행위가 '사상'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정책·학문공동체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적 행태'와 '군사 사상' 간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¹¹⁾

본 논문은 '주체 군사 사상'으로 불리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을 '자주의 모색과 이념적 굴절'이라

10)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군사야영생들과 한 담화(1962년 10월 2일)," 『김정일전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3), p. 337.

11)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2017);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 제57권(2014); 김태환, "김일성의 군사 사상과 군사전략," 『국방논집』 제8권(1989);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 제11권(2019); 허만,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고찰: 김일성 군사 사상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제24권(1984); 민병천, "주체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 『안보연구』 제20호(1991).

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소련군의 기계적 모방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군사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정권 안보 논리와 공세적 모험주의가 배태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특색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주’와 ‘독자성’을 화두로 한 ‘실천적 군사지침’으로서 태동하였다. 하지만, 북한 군사 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맞물리면서 ‘자위 사상’이라는 ‘실천적 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를 강화하는 ‘정치 전략적 지침’으로 굴절되었다. 말하자면, 북한이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의존성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자주’적 동기의 군사안보 차원의 발전전략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군사적 천재’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굴절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김일성의 통치를 목숨으로 수호하자는 ‘수령 결사옹위’의 친위대화 논리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군사 사상이 ‘전군 친위대화’를 위한 정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은 북한의 공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우상숭배를 위한 ‘상징 기제’로서 군사 사상은 김일성을 군사적 천재로 둔갑시키고, ‘무오류성’의 신적 위상을 가진 수령의 군사 사상은 ‘불패의 신화’를 창조해야 하는 확고부동한 군사지침이 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천재’라는 상징 장치는 북한군에는 전투에서 패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명예’를 씌웠으며, 이러한 ‘승리의 군대’라는 페르소나(persona)는 북한군의 공세적 모험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¹²⁾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북한 군사 사상의 기원으로서 항

12)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본성과는 다른 태도나 성격,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내면화한 것임. 스위스 심리학자 융(Carl Jung)이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persona를 처음 심리학에 소개함. <https://www.britannica.com/science/persona-psychology> (검색일: 2022. 8. 12).

일유격대 집단의 소련군 모방 과정과 한계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에 대한 노력을 분석한다. 소련군 모방기는 북한 정권 수립과 건군 과정으로부터 6·25전쟁까지를 분석범위로 하며, 독자 사상의 모색기는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연계하여 군사 사상의 대동과 변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 다루는 이념적 굴절기는 1974년 이후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 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할 것이다.

2. 항일유격대 집단과 소련군 모방

가. '김일성 항일유격대 집단'의 정체성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과 건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항일유격대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집단은 1930년대 '만주' 일대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일본 관동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한 중국-한인 연합부대 중 김일성과 관련된 게릴라 세력들을 지칭한다.¹³⁾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동북항일연군'과 같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를 만들어 유격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마오쩌둥의 혁명전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군의 토벌과 추격으로 인해 대부분 소탕되었고, 일부가 1940년~1941년 소련 연해주로 도피하여 소련군 극동사령부 예하 정찰부대인 88여단에 흡수되었다.¹⁴⁾ 그들은 해방 전까지 소련

13)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p. 102.

14)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1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 453.

군에 복무하면서 소련군의 제2차 세계대전 수행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의 주역이 되었다.

김일성 항일유격대의 군사적 정체성은 1930년대 만주 항일유격대의 ‘실패한 전투’라는 공동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훗날 북한 공식 역사기록은 1930년대 ‘항일유격대 전쟁’을 김일성의 영도하에 이룩한 ‘승리의 신화’로 가공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승리한 전쟁도 아닐뿐더러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도 아니었다. 그들의 집단 기억은 일본군에 쫓기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함께 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¹⁵⁾ 그들에게 그 전쟁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1930년대 김일성이 속했던 동북항일연군은 최고 지휘관이 사살되는 등 일본군 토벌로 인해 완전히 분해되었지만, 김일성 유격대는 겨우 죽음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다. 북한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 말까지 약 100일간 ‘겨울의 생사 갈림길’은 그들이 강자와 어떻게 싸워야 하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각인시킨 ‘생존 투쟁의 교과서’가 되었다.¹⁶⁾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빨치산의 대서사시의 본질은 초강대국인 일본과의 절대전쟁(absolute war)에서 소멸하지 않고 생존했다는 데 있다.¹⁷⁾ 그 비결은 결전 회피와 도주, 기다림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항일유격대는 ‘실용적 생존주의’와 ‘지구전(protracted war)’의 유전자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도의 계산적 판단과 행동을 해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

15) 김학준, 위의 책, pp. 467-468.

16) 김일성동지락전편찬위원회, 『김일성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238-239.

17) Carl v. Clausewitz,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적 판단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김일성 항일유격대는 강자와 싸우기 위해 불리한 상황에서는 결전을 회피하고 도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역량보존 이후에 결정적 기회를 탐색할 줄 아는 '현실적' 정세판단을 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난관 속에서도 승리의 희망을 잃지 않는 '군사적 낙관주의'를 강조하면서, 선부른 판단으로 신중하지 못한 공세적 행동 때문에 자멸할 수 있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경계하라고 경고하였다.¹⁸⁾ 그들은 힘센 상대를 만나서 '도망'갈 줄 아는 현실적인 역량계산에 능숙했다. 그리고 치고 빠지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어서 상대를 소진시키는 '지구전'에 익숙했다.¹⁹⁾ 상대의 역량이 결집되고 집중되어 자신이 사지로 몰리게 되면 사력을 다해서 도주하였으며, 추격하는 적보다 더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의지를 보였다. 출구가 완전히 막히게 되자 그들은 '소련으로의 도피'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한편, 해방 이후 군 건설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공동의 기억과 경험은 1940년대 초반 연해주에서의 소련군 복무 경험이었다. 1930년대 만주 경험이 일본군이라는 '강자'를 상대로 한 '약자'의 게릴라전 학습장이었다면, 1940년대 연해주 경험은 독일군과 일본군을 차례대로 패퇴시킨 세계최강의 '소련군'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쟁 학교'나 다름없었다. 첫 번째 '게릴라 투쟁'은 항일유격대의 붕괴로 막을 내렸지만, 소련군의 승리는 김일성에게 전율을 느끼게 한 승자의 역사였다. 1930년대 게릴라전의 실패와 좌절 → 고난의 행군 → 도주와 생존이라는 '유격전의 반면교사', 그리고

18) 조선노동당출판사, 『세기와의불어(계승분) 8: 김일성 동지회고록』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9)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 (May 1938)," in :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mao/selected-works/volume-2/mswv2_09.htm (검색일: 2022년 3월 3일).

1940년대 소련군 복무 → 소련군의 2차 세계대전 승리라는 ‘정규전의 교본’을 받아든 김일성으로서는 후자에 대한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강대국 소련의 ‘위대한 전쟁’은 ‘초강대국의 괴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일성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소련군’의 전쟁전략은 김일성에게 현대 정규군의 교본이 되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전쟁의 기억은 해방 직후 북한이 소련군을 일방적으로 복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게릴라전 경험 위주의 소부대 지휘경험을 가진 항일유격대 집단은 정규군 건설과 지휘경험이 없었다. 중공군의 지도하에 게릴라전만을 수행했던 그들에게 현대식 정규군의 조직, 운영, 작전, 전술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영역이었다. 1958년 2월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 전에는 우리 군관들 속에 싸움을 해본 동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었다면 유격투쟁 당시 일본 군대와 싸운 경험을 가진 간부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일본 군대와 싸운 빨찌산의 전투 경험과 현대적인 큰 전쟁을 한 경험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우리 군대는 전투 훈련이나 해보았을 뿐 실지 전투를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대포알이 어떻게 터지고 총알이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실지 전투에서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회상한 것으로 볼 때,²⁰⁾ 북한군 창군의 원형은 소련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정규군 창설 : 소련군의 추종과 기계적 모방

북한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을 동행하는 핵심 행위자는

20)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인민군 제324군 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pp. 308-349.

‘군대’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군권 장악이었다. 국내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김일성이 자신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의 지지 이외에도 실질적인 군권을 선점했기에 가능했다. 김일성은 1930년대 만주 항일투쟁 시기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가르침’을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치 대혼란’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²¹⁾ 대혼란과 대격변의 시대에서 권력은 ‘선거 놀음’이 아니라 ‘무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일성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²²⁾ 항일유격대 집단은 군사 집단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먼저 조직하고 이에 토대를 두고 ‘신국가 건설’ 운동을 진행하였다.²³⁾ 1945년 9월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김일성 항일유격대 집단은 정규군 건설에 직접 관여하고 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소련군을 ‘스승’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은 그의 ‘제자’임을 자처하였다. 북한과 소련의 관계, 그리고 김일성과 스탈린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종관계에 놓여있었다. 건군 사업이 한창이던 1947년 10월 26일 김일성은 보안간부 1기 졸업식에서 “소련이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교훈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전략

21)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枪杆子里面出政权): 후베이(湖北) 한커우(汉口) 중국공산당 최고 회의(긴급회의) 87회의(1927년 8월 7일),” http://chinahumanitas.net/?bwl_kb(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22) 김일성, “김일성의 직접적인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조선중앙연감』 (1969), pp. 69-82. 김일성은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 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23)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p. 113. 해방 이전인 1945년 여름부터 이미 김일성은 하바롭스크 시기에 소련군과 접촉하였고, 88여단 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 해방 이전부터 소련야영지에서 소련군 지휘부와 밀접접촉한 김일성은 북한은 입국하기 이전인 1945년 8월에 이미 조선공작단위원회의 책임자로서 한반도로 입성한 이후 항일유격대 집단을 중심으로 당, 정권기관,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전술상으로는나 각종 군사 기술상으로 가장 우수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소련군을 철저히 추종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⁴⁾ 북한은 일관되게 ‘소련군을 따라 배우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소련군 교리와 제도를 모방하는 데 집중하였다.²⁵⁾ 김일성은 ‘자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무색할 정도로 소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북한은 ‘소련군대가 조선을 해방시켜 준 은공’과 ‘조선 인민의 독립과 민주 건설을 원조하여준 고귀한 업적’을 찬양하고, 스탈린을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스승’, 그리고 ‘조선 민족의 해방의 은인’이라고 숭배하였다.²⁶⁾ 김일성은 공식 연설에서 “해방자이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는가 하면,²⁷⁾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외무상이었던 박헌영은 1949년 1월 29일 조선 인민이 ‘위대한 소련의 무력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추앙하였다.²⁸⁾

이처럼, 김일성이 지향했던 정규군의 원형은 후진적 중공군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과 같은 거대한 파시스트를 물리친 초강대국 소련군이였다. 게릴라전에 대한 경험만 있을 뿐이지 정규군 건설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김일성 유격대 집단은 소련군의 군사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다.²⁹⁾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을 항일 유격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라고 규정하면서 군의 사상적 토대를 역사적

24) 김일성, 『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5), p. 485.

25)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26) ‘위대한 소련군대의 철거,’ 『조선중앙연감』 (1950년), pp. 229-231.

27) 김일성, 『김일성선집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 277.;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194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535-546.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소련군대, 소련 인민, 위대한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다.

28) 박헌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에 관하여(1949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49), pp. 203-228.

29)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194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535-546.

으로 항일유격대와 연결하고자 했지만,³⁰⁾ 현실적으로는 정규군 건설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이념과 체제를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소련군을 원형으로 1946년부터 정규군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간부 훈련대대부'를 만들고, 1947년 '북조선 인민 집단군 사령부'를 거쳐서 1948년 '조선인민군'을 공식 창건하였다.³¹⁾

남침 전쟁 준비를 본격화하던 1949년부터 소련군에 대한 김일성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하였다. 1949년 초부터 북한은 탱크와 자주포 등 주요 전투 장비들을 북한으로 도입하였고, 전차사단을 창설하는 등 '소련군식 전격전'을 구현하고자 했다. 1949년 38선 일대의 주요 분쟁상황과 한반도 정세는 스탈린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계획을 논의하면서 전쟁 모의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김일성의 남침공격 계획은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기획되었고, 전쟁 수행 단계마다 소련의 지시와 협조하에 중요결정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도주'할 줄 아는 현실감각을 갖춘 항일유격대가 '조금의'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자 급진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로 기울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소련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의존과 과신이 '오관'을 촉진하여 군사적 모험주의로 흐르게 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³²⁾

김일성의 '스탈린 의존'은 거의 병적이었다. 김일성은 전쟁 중에도 소련군의 군사전략과 교리를 '선진적 군사이론과 기술'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군이 이러한 '선진 군사이론'을 '재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³⁾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김일성은 조선노

30) 김일성,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 1948. 2. 8.," 중앙정보부, 『김일성군사논선』 (1979. 10), p. 18.

31)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32) "전투처럼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던 김일성의 전술편향의 사고방식이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개전의 '오관'을 촉진했던 현상을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라고 분석한 연구를 참고. 김태현, "김일성의 6·25 전쟁 전략분석: 전략의 전술화," 『군사』 제105호(2017. 12), p. 98.

동당이 ‘레닌-스탈린 학설에 따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당 사업의 기초를 ‘스탈린 동지의 지적’에 토대를 두고 방향을 잡아 나갔다.³⁴⁾ 1952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선노동당을 ‘돌격대’라는 칭호를 부여한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탈린 동지의 말씀’을 성경처럼 인용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1954년에도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군정 간부 회의에서 북한군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군대’이기 때문에 소수의 군대라도 우세한 적을 타승할 수 있다고 강조할 정도였다.³⁵⁾

다. 소련군 모방에 대한 ‘수정적’ 인식

북한의 ‘독자적’ 주체 군사 사상의 경험적 토대는 6·25전쟁이었다. 북한은 6·25전쟁의 교훈을 ‘금을 바꿀 수 없다’라며 ‘조국 해방전쟁’을 철저하게 연구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⁶⁾ ‘정의의 전쟁’, ‘혁명전쟁’, ‘김일성의 승리한 전쟁’이라는 식의 정치적 선동을 걷어내고 나면 6·25전쟁은 소련군의 맹목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군사 사상’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한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3) 김일성,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317-407.

34) 김일성, “당 단체들의 조직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년 11월 1일),” 『김일성선집 3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349-396.

35)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군정 간부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발췌(1954. 12. 23.),” 중앙정보부, 앞의 책, 1979, p. 188.

36) 김일성, “인민군대 4기 4차 전원회의의 결론 연설(1969. 1. 6.-1. 14),” 중앙정보부, 『김일성군사논선』 (1979), p. 40.

군사 전략적으로 6·25전쟁은 북한의 '소련군 따라 하기'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소련군의 군사 지원으로 공격 장비를 갖춘 뒤 소련군 군사고문단의 작전 수립과 전쟁 지도를 받아 6·25전쟁 전반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계획과 실시간 치명적인 괴리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북한 1950년 6월 25일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단시간에 점령하고 8월 말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전격적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김일성의 애초 기대만큼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보고서'와 '별오리 회의'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1950년 6월 서부전선의 공격속도에 비해 동부전선 지역의 공격이 지연되는 등 소련군식 전격전이 한국지형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강과 하천이 많은 지형에서 도하 장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 미군의 공중공습에 대한 방어준비가 잘 안 된 점, 한국의 산악지형에 맞는 산악전투의 필요성 등 한반도의 실정에 맞는 전쟁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³⁷⁾ 핵심적인 내용은 소련군식 전격전이 한반도에서 비판 없이 적용된 데 대한 반성과 한계점에 관한 것이었다.³⁸⁾

정치 전략적 차원에서도 6·25전쟁은 북한의 강대국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검증대가 되었다. 남북 전쟁이 미소 간 대리전으로 변질하면서 김일성은 전쟁 수행의 주도권을 중국과 소련에 빼긴 채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쟁의 목표와 방식이 조정되는 국제정치의 살벌한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1950년 9월

37)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147-210.;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제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82-184.; 193-197.

38) 김일성,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 시 김일성 결론 연설(1969년 1월 6일-14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1974), pp. 328-340

중순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이 궁지에 몰리던 국면,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이후 북·중·소간 전쟁 지도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자국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무시하는 등 국제관계에서 작동하는 실별한 ‘국가이성(Raison d’Etat)’의 현장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과 소련의 개입과 간섭이 강화되고, 반대로 자신의 주도권은 약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3년간의 전쟁은 북한-중국-소련 간의 주종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은 ‘3년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책임의 위기에 몰린 국내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권력투쟁에서의 ‘반전’을 꾀하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왔던 중국과 소련의 입김은 더욱 강력해졌다. 김일성은 전쟁 초기 국면이 실패로 돌아가자 1950년 12월 새로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의 중국사령관인 평덕화이(彭德懷)에게 군사지휘권 일부를 중공군에 이양해야 했다.³⁹⁾ 북한은 김일성의 위신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의 ‘지휘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1960년대를 지나면서 ‘대국주의의 간섭’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배경에서 전쟁 후반기에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선진 혁명당의 경험’이라고 하면서도 소련군을 맹목적,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초래된 폐해를 지적하면서 북한 ‘실정’과 접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52년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의 의미를 “우리나라 정세에 부합되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할 줄 알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정세들을 분석할 줄 알며 그 분석에

39) 서상문, “중조연합사령부(中朝聯合司令部) 재론,” 『군사』 제95호(2015년).

40) 김용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 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2012), pp. 239-287.

기초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까지 예견할 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⁴¹⁾ 김일성은 해방 이후 정권 수립과 전쟁기를 지나면서 북한이 소련군을 기계적으로, 외피적으로 복사하려고 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엄중한 결점’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⁴²⁾

6·25전쟁 수행에서 소련 일변도 전략이 실패로 드러나자 북한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의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 속에 더욱더 스탈린과 소련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하는 가운데 무비판적 소련군 모방을 북한 현실에 맞게 변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련군에 더욱 집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련군 의존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는 인지 부조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김일성의 오랜 생존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살기 위해서 스탈린에 절대 복종해야 하지만, 또한 살기 위해서 ‘소련식’을 맹종해서 초래된 재앙적 결과를 수습해야 했다. 물론 ‘맹종’의 책임을 바로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정적들에게 전가하였다. 그가 가장 소련식으로 앞장섰는데, 자신은 항일 유격대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워서 소련군 계열의 한인 출신들을 희생양으로 몰았다. 그렇다고 북한이 소련군 군사체제의 틀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은 전쟁이 끝난 후 중국과 소련과 연계된 내부 정적을 소탕하기 위해 ‘주체’를 이용하였을 뿐, 소련을 직접 비판하거나 스탈린을 직접 부정하지는 않았다.

41) 김일성,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317-407.

42) 김일성,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pp. 317-407.

3. 독자적 군사 사상의 모색과 형성

가. '주체'와 '자주'의 등장

소련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는 '독자화'의 모멘텀은 역설적이게도 소련과 중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전쟁 수행 중에 발동되었다. 전쟁 지원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청구서는 전쟁 이후 김일성에게 권력을 위협하는 비수로 돌아왔다. 6·25전쟁을 계기로 '안보 지원'을 대가로 김일성의 순응과 복종을 요구하던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 김일성이 '자율성 확대'라는 카드로 맞서는 상황에서 '주체'가 등장하였다.⁴³⁾

6·25전쟁 직후 대내외 정치 상황은 김일성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1953년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 하자 세계 공산주의는 분열되었다. 김일성은 소련지도부를 '수정주의' 노선으로 비판을 하고 스탈린주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이를 북한의 현실에 독자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대내적으로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국내 소련과와 연안파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김일성' 중심의 권력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했다. 김일성의 돌파 전략은 바로 '주체'였다. 1955년 '사상에서 주체 확립'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은 당내에서 '기계적으로 소련을 본뜨려고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 있으며',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싸우고 있다'라며 사대주의자와 교조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43)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pp. 904-933.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⁴⁴⁾ 김일성은 소련파와 연안파의 대외 의존적 행태를 ‘주체’의 이름으로 비판하였다. 이 당시 ‘자주’와 ‘주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올가미였다.

김일성은 1956년 이후 전개된 긴박한 대내외적 정치적 도전을 북한의 국가적 자주성과 주체 확립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였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수정주의’ 노선을 둘러싼 중소 간 이념 분쟁 속에서 북한은 중립 입장을 취해야 하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국내적으로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의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56년 8월 연안파와 소련파가 손을 잡고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련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김일성이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지도부가 개입하여 김일성을 지지하려 하였다. 이렇듯 중국과 소련이 얽여 있는 반김일성 세력을 축출하는 ‘반종파 투쟁’ 과정에서 ‘주체’는 권력 확립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이때부터 소련에 대한 대외적 자주성을 의미했던 ‘주체’의 개념은 사상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을 겪은 이후 자주적 안보역량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소 이념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김일성이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려면 군사적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다. 김일성은 군사역량의 결핍이 소련과 중국 관계에서 위계적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인식했다. 무엇보다 김일성은 ‘대국주의’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국방에서의 주

44)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안보통일문제기본자료집 북한편』 (서울: 동아일보사, 1972), p. 269.

체'를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최고의 정치자산이었던 항일유격대 경력을 또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항일 군사경력'을 무기로 정적들을 제거해나갔다. 이때까지는 아직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과의 연계성'에 비중을 두면서 북한 군사 사상의 독자성을 전면에 부각하지는 않았다. 1958년 김일성은 인민군 창건 10주년 연설에서 인민군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지침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라고 하였는데,⁴⁵⁾ 여기서 김일성은 항일유격대 집단이 해방 직후 인민군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항일유격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되었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였다.⁴⁶⁾

1960년대 들어서자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이 당시 국방에서 '주체'는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적 정책'의 문제였을 뿐 사상과 이론의 영역으로 심화하는 문제가 아니었다.⁴⁷⁾ 1960년대 초반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소련의 '굴복적 행태'와 중공군 철수로 인해 강대국에 의한 방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방침을 제기하면서 주체사상의 외연을 '국방 분야'로 확장하였다. 1962년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기 시작하면서,⁴⁸⁾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군사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의 '발전전략'으로서 '군사 분야에서의 주체'를 강조하였다.⁴⁹⁾

45)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제324 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2. 8." 중앙정보부, 앞의 책, p. 21.

46)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인민군 제324군 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pp. 308-349. 여기서 김일성은 '항일유격대 사상'이 곧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

47) "진정한 혁명의 군대 인민군대," 『노동신문』 (1964년 2월 8일).

4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159.

49) 광승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상과 역사 인식』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6), p. 91.

1963년에는 김일성이 연설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당의 구호를 상기시키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으로 '자위의 방침'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위의 방침을 "자기가 자기를 보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위하여 줄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위라 하여 다른 나라의 원조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조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도 문제없다, 이런 원칙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⁵⁰⁾

196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 원칙을 '주체사상의 군사 분야에서의 구현'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가장 독자적인 군사 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자위적 군사방침을 강조하면서, 전군 간부화, 전국 요새화,全民 무장화를 우선적인 과업으로 제시하다가 1966년에는 '군대 현대화'를 추가하여 4대 군사 노선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은 '전체 인민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망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1965년 4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에서 주체 확립과 관련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가 이루어졌다. 1968년 1월 조선신보에서는 "자위라고 하여 국제적 지지원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조국의 결정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주체적 힘이며 따라서 자신이 자기를 보위하는 것이 확고한 원

50) 김일성,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 (1963년 10월 5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223.

51)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할 데 대하여(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회의),"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p. 261-262.

칙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⁵²⁾

나. 유일 지배체제의 형성과 ‘김일성 장군’의 우상화

1967년은 김일성의 권력투쟁의 정점을 찍던 해였다. 1967년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통치 담론의 성격으로 변질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한 ‘보편적 사상이론’으로 발전되었다. 1967년 5월 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범위를 넘어서 마오쩌둥 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경쟁하는 보편적 이론화의 시기를 거친다.⁵³⁾

군사 분야에서도 ‘김일성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창적 군사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자 북한은 김일성 유격대의 1930년대 게릴라 투쟁을 분석하여 이를 현대 조선인민군의 군사 전통과 연계시키려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북한은 ‘독자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김일성이 경험했던 ‘1930년대 만주 항일 무장투쟁’과 ‘조국 해방전쟁’을 군사사상 정립을 위한 경험적 원형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가 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국내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후자는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군사문제 전반에 대한 나름의 독자적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군사 사상 정립의 토대로 다루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김일성 우상숭배’에 초점을 둔 군사적 ‘영웅주의’와 낭만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군사에서 ‘만주’ 북한의 정치 군사의 정신적

52) “우리 당의 군사 노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 (1968년 1월 17일).

53) 이종석, 앞의 책, p. 129.

메카였다. '만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모진 난관을 헤치고 무장투쟁을 했다는 서사적인 군사적 낭만주의에 초점을 두고, '고통받은 민족해방 전사'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로 인해 김일성의 군사 행적은 진실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왜곡 과장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영웅주의'에 초점을 맞춘 사상작업은 실천적 담론으로 태동하였던 '자위 국방 사상'의 발전에 심각한 변형을 유발했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는 사회과학적 분석 대상보다는 정치적 선전의 소재로 다루어져야 했다. '천재적인 군사사상가'라는 위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확립뿐만 아니라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만큼,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사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⁵⁴⁾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군사 사상을 주요 군사 사상으로 인식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그것을 독창적으로 적용하려는 '실천적 방도'의 성격으로 풀이하기 시작했다. 1967년 4월 25일 조선중앙년감에 실린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 기념사에서 김일성은 "투쟁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⁵⁵⁾ 항일 무장투쟁에서 '주체적 입장'에 따라 '자주적' 정치 노선과 '독창적' 전략 전술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인민군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한다는 점,⁵⁶⁾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노선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노선"이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

54) 광승지, 앞의 책, p. 97.

55)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1968년)," 『조선중앙년감』 (1968), pp. 89-92.

56)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높은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민주조선』 (1968년 1월 16일).

하였다.⁵⁷⁾ 단적으로 196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은 6·25전쟁이 “김일성의 군사 사상과 군사예술,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수령의 주체사상의 승리”라고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이 ‘수령의 군사 사상과 군사예술의 혁명적 진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체적 군사 사상’의 초보적 개념으로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군사 분야에서 구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무장력 건설과 국방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⁸⁾ 1969년 북한은 대내외 학술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김일성의 게릴라 투쟁을 분석하여 이론화하는 한편, 북한이 추진하던 국방에서의 자위, 자위적 군사 노선 및 4대 군사 노선을 정당화하는 데 집중하였다.⁵⁹⁾

‘김일성’과 ‘독자성’이 동의어로 굳어지면서 북한의 왜곡은 더욱 체계화되고 일상화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김일성의 군사 사상을 구축하고 싶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만주 항일투쟁이 마치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러나 만주유격대의 군사 행적은 군사 전략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동북 항일연군 전체를 지도한 것이 아니며 일부 부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전술적 차원의 의미 이상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적 지도는 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몫이었으며 군사 전략적 차원의 전쟁

57) “김일성의 직접적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아바나문화대회에서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 투쟁 시기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헌,” 『조선중앙연감』 (1969), pp. 69-82.

58)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 『조선중앙연감』 (1969), pp. 180-184.

59) “김일성의 직접적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pp. 69-82. 조선중앙연감에는 1969년 소왕청 유격근거지 방어 전투 35주년 논문, 동녕성 진공전투 35주년 기념 논문, 고난의 행군 30주년 기념 논문, 쿠바 아바나 학술논문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는 오롯이 중국 지휘관의 몫이었다.⁶⁰⁾ 김일성은 소규모 전투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았으며 김일성이 중심이 되는 무장투쟁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김일성의 만주유격대 경력은 해방 이후 부풀려져 과장해서 그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는 '과잉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김일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유격전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중국의 마오쩌둥 군사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독자화하려는 시도는 소련의 마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변용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북한은 일찍부터 러시아 군사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현실에 맞게 특색있는 중국식 혁명전쟁 이론을 정립시킨 마오쩌둥 사상을 주목하였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소련군에 편향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마스-레닌주의를 중국식으로 변용한 마오쩌둥의 '인민 전쟁론'을 주목하였다. 북한이 1980년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군사분야에 적용시켜 '주체 군사사상'을 '사람 중심의 군사사상'이라고 이론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사람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본질에 있어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사상'과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⁶¹⁾ 북한은 건군 초기에는 소련식을 '복사'하듯이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독자화의 길을 모색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소련식'을 중국 특색의 군사사상으로 변용하던 중국의 접근방식에 착안하여 '북한식' 군사사상을 발전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6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6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역사연구소, 『김정일 동지 약전』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9), p. 63. 김정일은 강대국의 '무기 중심 군사이론'을 비판하면서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김일성 군사 사상의 출발 원리이며, 이것이 김일성 군사 사상의 '근본 특성'이며 기존의 군사 사상에 비추어 '주체의 군사 사상의 우월성'이라고 강조했다.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팔복원, 1999), p. 98.

다. ‘주체적 군사 사상’의 등장과 군내 확산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 ‘주체’와 ‘군사 사상’이 결합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 ‘자위의 군사 사상’, ‘자위 사상’, ‘김일성의 군사 사상’이라는 개념들을 섞어 사용하면서 ‘자위적 군사 노선’을 ‘주체사상의 국방에서 구현’, ‘독창적인 군사전략 사상’, 혹은 ‘주체적 군사 노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주체적 군사 노선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항일유격투쟁과 ‘조국 해방전쟁’의 경험을 기초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⁶²⁾ 이 시기에 북한은 ‘자위적’ 군사노선을 ‘주체사상’을 연결하고 이것을 다시 당의 유일사상 확립과 연계지었다.⁶³⁾ 선전매체의 주요 논점은 김일성이 항일유격투쟁 시기에 ‘독창적인 혁명무력 건설이론’과 ‘창조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했다는 점과 김일성이 위대한 ‘독창적 군사 사상가’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었다.⁶⁴⁾

‘주체’와 ‘독창성’의 강조는 군사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구체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우선, 북한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들자는 구호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1968년 6월 북한은 보천보 전투 승리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동지

62) “우리 당의 군사 노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 (1968년 1월 17일). 주체라는 개념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결’,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 따거나 기성교리에 교조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것’, ‘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철저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국방건설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자주적 노선’, ‘우리 혁명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제 방침과 방도’ 들이라는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63) 최현, “우리당의 자주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무장시켜 요새화하자 (1968년 1월 18일),” 『조선중앙방송』 (1968년 1월 18일).

64) “김일성이 조직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도된 영광스러운 투쟁,” 『노동신문』 (1968년 4월 25일).

의 사상 이외에는 그 어떠한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편단심 김일성 동지께 무한히 충성하여 그이의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자고 선언하였다.⁶⁵⁾ 1968년 2월 8일 민족보위성은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를 하달하여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하고 명령문의 말미에 ‘조선인민군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라고 끝을 맺었다.⁶⁶⁾ 이것은 1966년 민족보위상이 내린 명령에서 말미에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만세”의 구호와 비교할 때 김일성 찬양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다.⁶⁷⁾

한편, ‘주체적 군사사상’의 논조는 소련의 군사 사상을 밀어내고 부정하는 수준까지 위상이 격상되었다. 1969년 김일성은 인민군 전원회의에서 대놓고 ‘절대 소련 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강조하면서 6·25전쟁 경험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1969년 2월 오진우 총참모장은 인민군 창건 21주년 기념사에서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과 6·25전쟁 수행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모두 ‘김일성의 위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65) “보천보 전투승리 30주년(1968년 6월 4일),” 『조선중앙년감』 (1968), pp. 92-94. 일제 강점기 김일성이 1937년 6월 4일 함경남도 보천보 지역(현 양강도)에서 경찰과 치른 전투로서, 보천보전투는 김일성의 이름을 국내에 알리고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이 유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보천보전투로 대표되는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 성과는 광복 이후 그가 귀국한 뒤 북한 지역에서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올라서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당대 유명 작가였던 한설야는 1946년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웅 김일성 장군』을 출판하기도 했다.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305&menuId=NK_KNWLDG_DICARY (검색일: 2022. 8. 12).

66) 김창봉,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1968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p. 769-770.

67) 김창봉, “민족보위상 명령 제5호,” 중앙정보부, p. 768.

68) 김일성,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 시 김일성 결론 연설(1969년 1월 6일~14일),” p. 340.

군사 사상'과 '천재적인 군사 전략 전술' 덕분이라고 강조하였다.⁶⁹⁾ 그러면서 김일성의 군사 사상은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군사이론의 창조적 발전을 의미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풍부히 하는 데 공헌을 한다”라고 하였다. 1969년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노선을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상,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국방 분야에서 표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방건설과 혁명전쟁에 제반 요구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⁷⁰⁾

주체사상이 '유일 지배' 논리로 변질하면서 북한 군사에서 언급된 '독창성'이라는 구호는 '김일성'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1970년 11월 당 제5차 대회에서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며 '주체사상은 지도 사상'으로 선언되자,⁷¹⁾ 군에서도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창조적, 독창적 군사사상·군사이론 등을 창시하였으며 혁명무력 건설을 천재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구현하여 인민 무력건설의 빛나는 전범을 창조"했다고 명문화했다.⁷²⁾ 이 시기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선전하는 '주체적 군사 사상'은 항일무장 투쟁 시기 경험을 바탕으로 '혁명무력 건설이론'과 독창적이 '전략 전술'을 창조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한편, '조국 해방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전범, 무기개발,

69) 오진우, “인민군 창건 21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총참모장 대장 오진우 보고(1969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352.

70)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김일성의 자위 사상이라는 데 대해서,” 『조선 중앙 제2방송』 (1969년 5월 7일-5월 8일).

71)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대회 폐회사,”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pp. 59-62.

72)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민족보위부장 상장 한익수 보고(1971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400.

훈련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도배되었다. 1970년 김일성은 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개발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전투 훈련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³⁾ 1972년 김일성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 개념을 제시하였고,⁷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⁷⁵⁾ 이에 따라 1972년 4월 총정치국장 한익수는 '김일성 동지의 군사 사상'에 따라 북한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⁶⁾

4. '전군 친위대화'의 논리로 굴절

가. 수령의 군대: '군사 천재론'과 '수령 결사옹위'

'국방 분야에서 주체사상'은 소련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1970년 이후부터는 '김일성의 군대'라는 내적 명령체계 장악의 '이념적' 도구로 변

73)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보고: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1970년 11월 2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389.

74) 이종석, 앞의 책, p. 166. 김일성은 그간 모호했던 '주체사상'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으로 표현"된다고 강조했다.

7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 370.

76) 한익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454.

질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이후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전군의 김일성주의화를 군 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여 군에 대한 유일 지배체계를 절대화하였다. 김정일은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언급하기 시작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김일성 우상화’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1974년 김정일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하였고, 197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간 차이를 언급하였다. 1970년대 중반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단계를 넘어서 독창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실상 통치 이데올로기로 규범화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주체사상 체계화에 나선 결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 가서 결실을 거두었다.⁷⁷⁾

1970년대 ‘주체적 군사사상’은 수령의 ‘군사적 천재성’을 우상화하는 유일사상의 논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수령 결사옹위’의 논리 등 두 갈래로 사용되었다. 1972년 『노동신문』에서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일성이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자위의 군사 사상을 창시여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기 위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⁸⁾ 197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김일성 결사대’라는 구호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1973년 총정치국장 한익수는 ‘유일사상체계’로 뭉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수령께 충성 다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77)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2012년 4월 20일),” 『조선의 오늘』 (2012. 4. 20).

78) “우리 당의 불패의 혁명무력 조선인민군,” 『노동신문』 (1972년 2월 8일).

79) 한익수, “조국 해방전쟁 승리 20주년 기념회 중앙보고 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

1974년 총정치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당과 전군, 전민이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주체사상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참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⁸⁰⁾ 한편, 북한 선전매체들도 일제히 김일성 우상화에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 대부분의 선전매체는 김일성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자 '천재적 군사전략가'로 선전하였다.⁸¹⁾

김일성의 '주체적 군사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점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1972년 김일성의 60세 생일을 맞아 김일성의 노작들을 수록한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조선인민군 출판사)을 출판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에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위적 군사 사상과 군사이론"을 담았으며, 항일무장투쟁과 혁명무력 건설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무장투쟁과 무력건설에 관한 군사선집을 관통하는 근본 사상이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⁸²⁾ '주체 군사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무장투쟁과 무력건설 등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개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접어들자 주체적 군사 사상은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

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1973년 7월 27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490.

80) 이용남, "인민군 창건 26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상장 이용남 보고(1974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506.

81) 최시형, "탁월한 영도, 위대한 군사전략," 『조국지』(1970년 6월호).

82) "항일 혁명전쟁의 탁월한 전략, 전술, 혁명무력 건설의 위대한 강령적 문헌: 김일성 군사논선 제1권 출판에 즈음하여," 『노동신문』(1972년 4월 19일).

로 만들자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1977년 김일성은 인민군 선동원 대회에서 “인민군대 내에서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지휘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군인을 다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군인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똑똑히 알고 그 요구대로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⁸³⁾ 김일성은 여기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과 ‘항일 혁명투쟁의 혁명전통’만 강조하였다. 1980년 4월 24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군대이자 김일성 동지의 군대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인민군은 위대하신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영명한 지휘하에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강조하였고,⁸⁴⁾ 4월 25일에는 “항일혁명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군대이며 김일성 동지의 군대이다. 김일성 동지는 조선인민군을 항일 무장투쟁의 정통의 후계자이자 혁명군대라고 교시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⁸⁵⁾ 이것은 인민군이 사실상 ‘김일성의 사병’이라는 것을 노골화한 것으로 북한이 이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군사 사상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독재화된 군대로 성격이 굳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접합시키면서 주체사상은 초기의 문제의식으로부터 굴절된 형태로 재체계화되면서,⁸⁶⁾ 이에 부응하여 군사 분야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이 약화하고 ‘주체 군사사상’이 유일한 군사 지도지침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주체사상이

83)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1977년 11월 30일),”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 (1979), p. 238.

84) 『노동신문』 (1980년 4월 24일).

85) 『노동신문』 (1980년 4월 25일).

86) 이종석, 앞의 책, p. 170.

맞물리면서 군내의 '주체적 군사사상'은 '신화'적 색채가 더해졌다. 김일성 우상화의 핵심적인 소재는 항일무장투쟁에서 '민족해방 전사'의 서사와 6·25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와 맞선 불굴의 영웅적 서사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 사상의 기반이 되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북한은 주체적인 군사 사상이 어떤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인 항일유격투쟁과 6·25전쟁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이론을 도출한 것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 두 전쟁에서 모두 실패한 지도자였으며,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지원과 지휘를 벗어난 독자적인 결심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김일성은 명실공히 북한 내에서 '군사적 천재'라는 신화적인 영웅으로 신성시되었다. 이렇듯 주체적 군사사상은 김일성의 군사 행적과 경험을 과도하게 부풀린 역사적 왜곡, 그리고 거기서 기인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적 오류를 내재하게 되었다.

나. '전군 친위대화'의 영향과 공세 주의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군사 사상을 구축한다는 것은 신중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천재적 혜안과 통찰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화된 우상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김일성의 천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유일 지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낙인찍혀 누구나 예외 없이 생존을 위협받는 구조로 북한체제가 변화하였다. '왜곡'과 우상화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내놓은 군사 사상은 '신화'와 현실이 혼재된 상태에 이르렀다. 거짓과 폭력이 일상화된 체제에서 김일성의 군사사상은 단순한 선전적 신화에서 현실 지침으로 변해갔다.

이렇듯 '수령 영도'와 '수령 결사옹위'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에

서 북한의 군사 사상은 공세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김일성이라는 불멸의 전사는 1960~197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지도자로 둔갑하였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조국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 변신했다. ‘강철의 영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수식어로 시작하는 선전매체와 교육자료가 나타내듯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전략가로 우상화되었다. 대국 지도자의 위상을 자체적으로 조작한 김일성은 자신이 세계적 군사사상가의 입지를 확보한 것인 양 자신 있게 행동했다. 그는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자신이 경험했던 ‘전투’를 분석하여 ‘북한식 전쟁 사상’을 끌어내려 하였고, 소련의 전략적 지도하에 수행했던 6.25전쟁의 교훈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북한식 군사사상’을 끌어내고자 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지도자를 의식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과감한’ 지도자임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대담성’과 ‘배짱’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사상이 1930년대 항일유격대 활동의 ‘과대망상’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체계화되는 동안 북한군은 집단적 자폐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올가미’에 갇혀 스스로를 기만하고 위안하는 상황으로 진입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허구가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집단적 기만과 최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수령의 신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 봐 진실을 지적하는 세력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의 군사사상이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군이 왜 ‘전투에서의 승리’ 그 자체를 인민군의 최대 목표로 지향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공한

다. 북한은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해 그 승리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보다 일단 개시된 분쟁과 전투에서의 '승리'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투에서의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김씨 일가의 유일 지배를 위해서는 '승리의 신화'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김일성 군사 사상을 받들고 있는 인민군이 전쟁과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 북한군은 자신들이 사실상 패배한 듯한 국면에서도 대내적으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전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전군 친위대화와 공세주의는 북한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더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적어도 세 번의 정권 붕괴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동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북한 정권과 군대는 운명공동체적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우선, 전쟁 패배로 인해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던 6·25전쟁에서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군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전쟁과 같은 '외부로 부터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있어 군의 존재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던 1990년대 체제 위기는 6·25전쟁과 달리 '내부로부터의 도전'이었는데, 이것은 '역사의 종언'으로 평가받았던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 대부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서구 체제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역동적 변화의 바람이 전 세계와 동아시아에 강타했지만, 북한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선군정치' 구호하에 군대를 앞세워 공세적으로 '북한식 생존전략'을 구사했다.⁸⁷⁾ 마지막으로, 1990년 중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8년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87) 선군사상은 평시 군사 사상의 역할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김유석은 북한의 선군사상이 군사 사상의 범주 중에서 평시 국가안보지원(제4범주)와 평시 국가정책 지원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운용(제5범주)과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유석, 『군사사상 총론』(서울: 황금알, 2022), pp. 237-267.

대두될 때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군대’를 정권 수호의 전위대로 내세워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공세적 전략을 구사했다. 최근에도 군사적 천재로 둔갑한 ‘수령’의 대담함과 배짱을 내세우는 북한의 선전적 구호가 단순히 ‘홍보’ 차원의 성격에 머물지 않고 북한군의 모험주의와 공세성을 부추기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 군사사상’은 탈냉전기의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는 동안 각종 위기 속에서 수령 결사옹위와 수령 영도체제와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고 가미되면서 수령중심의 공세 주의라는 관성을 내재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절체절명의 정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만 체제 생존과 연명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천재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수령의 지침에 따라 대내외 환경을 공세적으로 ‘돌파’해야만 ‘적’들이 함부로 체제 완전성을 침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군사사상에는 온갖 체제위기가 자신들을 앞잡아 보는 외부세력의 오만함과 포위 압살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포함하여, 그러한 국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 ‘횡포’를 부릴수록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믿음이 스며들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 군사 사상이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실천적 방침에서 ‘전군의 수령 친위대화’의 이념적 논리로 변질한 역사적 과정을 규명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주체’, 혹은 ‘자주’라는 담론

이 북한 군사 사상의 핵심축을 이루었던 것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본 경험으로 인해 파생된 특이한 의식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전후 질서에서 초강국으로 부상한 소련에 의존해야 했던 북한은 6·25전쟁을 계기로 소련군 의존의 부작용을 탈피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집체가 '국방 분야에서의 주체'라 불리는 '자위 사상'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자위'라는 실천적 담론은 김일성의 대내적 유일 지배체제 논리와 맞물리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까지 짧은 시간에 '수령중심의 군사 사상'으로 굴절되어 전군의 친위대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주'와 '유일 지배체제' 논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 사상은 김일성이 경험하고 인식했던 역사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정립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6·25전쟁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토대를 두고 김일성을 '독자적 군사사상가'의 지위로 격상시키려 하였다. 북한이 6·25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전후 군사력 건설과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허구일 수는 없다. 북한군은 정규군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며, 종전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군대였다. 중국과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의 모든 결심의 정점에는 항상 김일성이 있었고, 전쟁의 승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김일성의 몫이었다. 이러한 전쟁 수행의 경험은 북한군의 '독자적'인 군사 사상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군사 사상의 이론적 모형으로 지목하는 1930년대 만주 항일 무장투쟁과 1950년 6·25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김일성 우상화'에 초점을 둔 군사 사상으로 집대성하였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 사상은 조작된 신화적 강령에 기

초하여 체계화되었음에도 이것을 뒤집거나 부인할 수 없는 ‘집단적 기만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김일성의 군사사상’을 독자적 군사사상의 원형이라고 여기며 불변의 진리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김일성의 군사사상이라고 북한이 내놓은 것들이 김일성 사후에 변화하는 전략환경에서도 모두 유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사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오류를 피하고자 김일성의 군사사상을 되도록 함축적, 추상적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후세에 와서 재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한편 무오류의 수령의 체면을 보호하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북한 당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만, 북한 원전에서 주장하는 김일성 군사사상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주체적 군사사상이라는 것이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외하고 나면 김일성의 우상화와 ‘수령 결사옹위’라는 정치 전략적 선전 구호만 남는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이다.

셋째,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는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북한은 유독 ‘군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김정일의 최고 관심사는 체제 붕괴를 막는 데 있었는데, 그에게 ‘군대’는 체제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었다. 김정일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정권의 몰락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요인이 군대의 가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내부의 위협 때문에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 군대가 정권 붕괴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군대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제위기를 촉진하는 내부 주민들의 시위와 봉기를 유혈적으로 진압한다면 체제위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였다. 김정은 시대를 지나면서 북한체제는 ‘그럭저럭(muddle through)’ 버티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대는 여전히 정권 수호의 핵심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 '자위'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강대국 군대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의미도 함께 숨어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소련군의 진보된 군사기술과 군사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수행 경험이 많았던 소련군 전법은 북한에 현대전의 기준이 되었다. 북한은 소련군의 전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 국가가 군사 강대국들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거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현대식 정규군을 보유하고 운용했던 경험이 없는 신생국이 전쟁 경험이 풍부한 선진 군대를 모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모두 감추고 오로지 김일성의 '주체적 군사사상'이라는 구호로 군사사상의 형성과 변화의 전 과정을 포장해왔다. 북한에서 '자주'는 정치적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주체적 군사사상은 '극단적 자주'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만 해석되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자주라는 실천 담론으로 출발했던 북한의 군사 사상은 이제 '수령'의 신화적 강령을 중심으로 수령의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변질되었다. 이처럼 북한 군사사상의 역사적 변화 경로로 볼 때 북한군의 군사사상에는 합리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신화적 요소가 내재하여 있음이 분명하게 식별된다. 물론,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은 '김일성'이라는 '유령'이 아직도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군사적 천재'의 영웅주의에 대한 '희망적 기대', 혹은 '항수'는 군사적 모험주의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때, 군사적 천재로 내세우는 수령에 대한 북한군의 집단적 최면상태는 상대를 깔보고 자신을 높게 보는 상황인식의 오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군사적 오판과 모험주의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Clausewitz, Carl v.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 (May 1938)," in :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mao/selected-works/volume-2/mswv2_09.htm (검색일: 2022년 3월 3일).
- Morrow, James.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 곽승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상과 역사 인식』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서울: 군편, 2001).
-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 제57권 (2014).
- 김유석, 『군사사상 총론』 (서울: 황금알, 2022).
- 김응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 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2012).
-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 (194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1』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의 직접적인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투쟁," 『조선중앙연감』 (1969).
- _____, "노동당 제5차 대화 폐회사,"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보고: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1970년 11월 2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_____,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 _____, “당 단체들의 조직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년 11월 1일),” 『김일성선집 3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안보통일문제 기본자료집 북한 편』 (서울: 동아일보사, 1972).
- _____,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1963년 10월 5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_____, “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의 결론 연설(1969. 1. 6.-1. 14),”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 (서울: 중정, 1979).
- _____,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1977년 11월 30일),”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 (1979).
- _____,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 1948. 2. 8.,”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 (서울: 중정, 1979).
- _____,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인민군 제324군 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 제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 _____,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할 데 대하여(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 회의),” 중앙정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5).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김일성동지락전 편찬위원회, 『김일성동지락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2012년 4월 20일),” 『조선의 오늘』 (2012. 4. 20).
- 김정일, “수령님의 군사 사상은 혁명무력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김정일전집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411.
- _____,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군사야영생들과 한 담화(1962년 10월 2일),” 『김정일전집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김창봉,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1968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2017).
<http://uci.or.kr//G704-001646.2017.33.1.005>
- _____, “김일성의 6·25전쟁전략 분석: 전략의 전술화,” 『군사』 제105호 (2017. 12).
<http://doi.org//10.29212/mh.2017..105.95>
- 김태환, “김일성의 군사 사상과 군사전략,” 『국방논집』 제8권(1989).
-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1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枪杆子里面出政权): 후베이(湖北) 한커우(汉口) 중국공산당 최고회의(긴급회의) 87회의(1927년 8월 7일),” [http://chinahumanitas.net/?bwl_kb=\(검색일: 2021년 12월 20일\)](http://chinahumanitas.net/?bwl_kb=(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 민병천, “주체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 『안보연구』 제20호(1991).
-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한겨레 신문』 (2020. 2. 17).
- 박헌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에 관하여(1949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49).
- 서상문, “중조연합사령부(中朝聯合司令部) 재론,” 『군사』 제95호(2015년).
<http://doi.org/10.29212/mh.2015..95.1>
- 오진우, “인민군 창건 21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총참모장 대장 오진우 보고(1969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유판덕, “북한의 혁명전쟁이론으로 본 북한 핵무력,”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1호(2018).
-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 제112호(2019).
<http://doi.org/10.29212/mh.2019..112.129>
- 이용남, “인민군 창건 26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상장 이용남 보고(1974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http://uci.or.kr//G701:C-00030335547>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팔복원, 1999).
<http://uci.or.kr//G901:A-0008446578>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역사연구소, 『김정일 동지 약전』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9).
- 조선노동당출판사, 『세기와 더불어(계승분) 8: 김일성 동지회고록』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최시형, “탁월한 영도, 위대한 군사전략,” 『조국지』 (1970년 6월호).
- 최 현, “우리 당의 자주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요새화하자(1968년 1월 18일),” 『조선중앙방송』 (1968년 1월 18일).

- 한익수, “조국 해방전쟁 승리 20주년 기념회 중앙보고 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1973년 7월 27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_____,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허만,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고찰: 김일성 군사 사상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제24권(1984).
- “김일성의 직접적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아나문화대회에서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헌,” 『조선중앙연감』 (1969).
-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도된 영광스러운 투쟁,” 『노동신문』 (1968년 4월 25일).
- “보천보 전투승리 30주년(1968년 6월 4일),” 『조선중앙연감』 (1968).
- “비밀한 군사적 예지,” <https://ournation-school.com/lecture> (검색일: 2021년 7월 1일).
-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노동신문』 (2020년 10월 11일).
- “우리 당의 군사 노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 (1968년 1월 17일).
- “우리 당의 불패의 혁명무력 조선인민군,” 『노동신문』 (1972년 2월 8일).
- “위대한 소련군대의 철거,” 『조선중앙연감』 (1950년).
-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민족보위부상 상장 한익수 보고 (1971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1974).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2021년 1월 10일),” 『조선신보』 (2021년 1월 10일).
-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김일성의 자위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조선중앙 제2방송』 (1969년 5월 7일-5월 8일).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 『조선중앙연감』 (1969).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높은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
자,” 『민주조선』 (1968년 1월 16일).

“주체적인 군사 사상의 빛나는 승리,” 『조선중앙통신』 (2014년 7월 24일).

“진정한 혁명의 군대 인민군대,” 『노동신문』 (1964년 2월 8일).

“항일 혁명전쟁의 탁월한 전략, 전술, 혁명무력 건설의 위대한 강령적
문헌: 김일성 군사논선 제1권 출판에 즈음하여,” 『노동신문』
(1972년 4월 19일).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1968년),” 『조선중앙연감』 (1968).

(Abstract)

The Historical Origi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Thought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historical origi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suit of independence and the distortion of ideology," and to clarify that North Korean military ideology influenced the 'Su-Ryong(which means ringleader)-centered' regime security and offensive adventure strateg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Max-Leninism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creatively, North Korea's military ideology was initially conceived as a "practical military guideline" focused on self-reliance. However, North Korea's military thought, coupled with the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monolithic political system in the late 1960s, was deflected from the nature of the "practical guideline" of "self-defense" to strengthen Kim Il-sung's monolithic political power and control. Specifically, North Korea's strategy to break away from the military influence and depend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during the Cold War was deflected into the political logic of supporting Kim Il-sung's "military genius". This refracted into a political logic affecting North Korea's offensive nature of military thought. Military thought as a "symbolic mechanism" for idol worship turned into "Mu-o-ryu-seong"(which means flawless or perfectness)of 'Su-ryong', and then became an unwavering military guideline to create an "immortal myth." Kim Il-sung's symbolic device, a "military genius," put a kind of "persona"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that should not be defeated in battle, which affected North Korea's offensive adventurism.

Keywords : Juche military thought, persona, autonomy, self-defense,
anti-guerilla group, Kim Il-sung,
monolithic political system, aggressive militarism